

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날, 나무를 심어보자

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많이 심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며, 24절기 중에서 하늘이 가장 맑아서 나무 심기가 적합하다는 청명(淸明, 양력 4월 5~6일)을 기준으로 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.

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 방안으로 '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'라는 주장과 '나무심기나 숲 조성이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'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

어느 쪽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간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날씨가 유난히 좋은 요즘, 가족 및 직장 동료와 함께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꾸보고 나무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? **KMIF**



울릉도 향나무는 수명이 약 2,000년 정도인 우리나라 최고령 향나무입니다.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무렵, 척박한 암벽에 뿌리를 내리고 오가는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울릉도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.